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展

국내 첫 고갱 회고전, 고갱의 3대 걸작을 만나다

낙원을 그리는 화가이자 최후의 인상주의 화가로 일컬어지는 유진 앙리 폴 고갱(1848~1903년)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국내 첫 고갱 회고전인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가 6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개최된다.

고갱은 서양미술사에 남다른 이력과 특유의 화풍으로 각인돼 있다. 초기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과감한 원색의 색면과 원근법을 무시한 독창적인 종합주의를 펼쳐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전 세계 30여 미술관에서 대여한 고갱의 대표 작품 60여 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설교 후의 환상(천사와 싸름하는 아담)'·'황색 그리스도'·'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 고갱의 3대 걸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세계 전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폭 4m의 대형 벽화로, 탄생에서부터 삶과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5명의 현대 작가들이 고갱의 그림을 재해석해 만든 예술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 전시명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 전시기간 2013.06.14 ~ 2013.09.29
-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알폰스 무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 展



아르누보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알폰스 무하의 대규모 회고전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알폰스 무하: 아르누보와 유토피아' 전시를 연다. 알폰스 무하는 체코의 국보급 작가로, 이번 전시회에는 회화·판화·드로잉·사진 등 그의 작품 235점이 엄선되어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된다.

알폰스 무하는 회화, 장식 예술, 공예, 일러스트 등 예술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아르누보는 무하로부터 시작해 무하에서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클림트의 유겐트 양식과 더불어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사랑 받았으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겸비해 당시 아류로 치부되던 상업미술을 순수미술의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알폰스 무하의 손자에 의해 설립된 무하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아르누보 양식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세기 말 프랑스 사교계의 아이콘이자 유명 여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를 모델로 그린 지스몽다, 까멜리아, 햄릿 등의 주옥같은 연극 포스터들이 소개되며, 무하에게 체코 국민 화가라는 칭호를 선사해준 슬라브 서사시 연작을 통해 무하의 깊은 민족애도 엿볼 수 있다.

- 전시명 알폰스 무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
- 전시기간 2013.07.11 ~ 2013.09.22
- 전시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감정평가〉誌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로 지난 20여 년 간 국민경제와 밀접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보상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외적으로 감정평가 업계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회보 〈감정평가〉誌를 연 4회, 각 호당 2800부 이상 발간해 전국 회원사와 정부, 국회,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폭넓게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용과 편집의 혁신을 통해 최고의 정보제공 소식지로 거듭나는 〈감정평가〉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독자층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보를 통한 홍보를 원하시는 기업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 개요

- 발간횟수 :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 발간부수 : 각 호 2800부 이상
- 배 포 처 : 회원사, 정부기관, 국회, 지자체, 학교 등

광 고 문 의

한국감정평가협회 정책연구팀

TEL : (02)3465-9943 FAX : (02)581-9129

